

장수하늘소 복원을 위한 야생적응실험 실시

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지구 서어나무에 유충 이입
갈나무 이입 유충과 생활사 등 비교 연구 가능해져



한국시멘트협회가 후원하는 장수하늘소 증식·복원사업이 본 과도에 오르고 있다.

원주지방환경청은 10월 16일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지구에서 장수하늘소 복원을 위한 야생적응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 이번 실험은 지난해 오대산국립공원 북대사 지구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야생적응실험을 위해 설치한 케이지안의 서어나무에 장수하늘소 유충(2년생) 3마리를 넣고 무인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.

장수하늘소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5~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

번 서어나무에 이입한 유충은 2017년경에 성충으로 우화할 것으로 보인다.

영월곤충박물관 이대암 관장은 "이번 실험을 통해 지난해 신갈나무에 이입한 유충과 생활사 등 비교 연구가 가능해져 장수하늘소 증식·복원의 귀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
한국시멘트협회, 장수하늘소 증식·복원사업 후원

한국시멘트협회가 후원하는 장수하늘소 복원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,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, 영월곤충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. 원주지방환경청은 실험장 조성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.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실험장 관리 및 모니터링을, 영월곤충박물관은 장수하늘소 인공증식 및 기술자문을 실시한다. 한국시멘트협회의 경우 장수하늘소 증식·복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,000만원을 지원했다.

장수하늘소는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큰 곤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희귀 곤충이다. 1898년 러시아의 우수리 지방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으며, 중국의 동북부지방 일부와 동부 시베리아, 북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70~80년대까지 경기도 광릉과 오대산 소금강 지역 등에 서식하였으나, 무분별한 벌채와 남획 등으로 서식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멸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평창지역에서 장수하늘소, 열목어,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함으로써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친환경적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▲